英 才 敎 育 硏 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1995, Vol. 5, No. 1, pp. 69~71

<토론1>

"영재교사의 양성과 연수체계"에 대한 토론

이 종 재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을 전공하지 않는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교육과 교사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관점에 터하여 논의에 임하게 되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김정휘교수님의 "영재교사의 양성과 연수체제"에 대한 논문은 영재학생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동원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질을 형성하기 위한 교사양성의 체제에 대하여 필요한 요건을 지적하는 논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논평자의 입장에서는 논의를 요하는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영재의 개념과 영재교육의 본질

아무래도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과 교사의 양성에 관하여 논의를 할 경우에 "영재"와 "영재교육"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외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영재교육에 관련된 논의에서 아직도 영재와 영재교육은 생소한 개념이고 논의하는 사람마다 이 개념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개념규정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개념규정은 제1주제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영재교육을 위한 교사양성과 관련하여 관련개념의 규정을 불가피하다.

문외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영재를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 1유형은 아인쉬타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영재이고 제 2유형은 영역별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 제 3유형은 보통사람들에 비하여 재능이 돋보이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제 1유형의 사람이 어느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 得人이라고 할 만하다. 제 2유형의 사람은 才人, 그리고 제 3유형은 秀人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김교수는 맹자의 人生三樂을 들어 영재교육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다. "뛰어난 재능이 있는 자를 구하여 가르치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좀 엉뚱하게 맹자의 삼락을 해석한다면 맹자는 우리가 노력하여 이루어 지는 일을 삼락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盡人事 待天命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여기에 내 힘으로 안되는 것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의 기쁨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교육한다고 하여 그 교육의 성과가 이루어 진다는 보장은 결코 없다. 교육은 단지 노력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맹자는 말로는 "得 天下英才"라고 하였으나 그의 中心은 誠心을 다하는 가르침에 있었고, 그의 가르침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는 기쁨을 三樂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다고 생각한다.

英材란 得人과 才人과 秀人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을 일컸는다고 생각한다. 득인이란 본인이 성취하는 것이지 교육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秀人은 일반교육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재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영재교육은 결국 재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인은 누구이며 재인을 위한 교육기관은 무엇이며 이러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교육은 영재교육인가? 미국의 Caltech이나 MIT는 영재교육기관인가? 하는 질문을 생각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과학고등학교나 예술계학교는 영재교육기관인가? 논평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러한 학교들은 실력이 좀 뛰어난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교육기관이지 영재교육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영재교육은 才人의 싹을 키워서 재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영재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결코 영재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재인의 싹은 예술분야에 한정된 특수한 재능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한다. Juilad음악원은 영재교육기관의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영재의 영역을 너무나 확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문학가가 될 영재가 따로 있으며 과학자

가 될 영재가 어디 따로 있겠는가? 어학의 영재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교 혹은 예술계고교 등은 교육과정상 그 방면에 약간의 중점을 두는 특성을 살리는 학교의 종류에 불과하다.

영재교육은 制度로서 유형화되기 어려운 교육의 한 형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혹시라도 우리는 영재교육을 너무 확대하여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영재의 싹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 싹이 들어나는 분야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외는 모두 일반교육 중에서 들어나는 개인차의 수준이고 拔群의 業績은 교육으로 될 일이 아니고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성취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재인의 피나는 노력은 보지 못하고 하늘에서 부여받은 무슨 신통한 능력이라도 있는 줄 알고 이것을 미리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사의 일반적 자질에다가 재능의 싹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 영재에게 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地平線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영재를 교육하려는 사람은 "英才的"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양성하는 교사교육의 체제가 어디 따로 있겠는가? 이러한 사람의 교육이 연수로 가능하겠는가? 라는 느낌이 든다. 영재로 들어나면서 영재의 실력을 발휘하는 現業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교육하는 사람이 영재를 담당하는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람은 "교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찾아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